

일본어 연체사 「ある」의 지시사적 용법에 따른 조사 「が」와 「は」의 의미적 고찰

한승우*
bakas400@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연체사 「ある」에 있어서의 「が」와의 상관관계 |
| 2.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 5. 마치며 |
| 3. 연체사 「ある」에 있어서의 「は」와의 상관관계 | |

主題語: 조사(Postposition),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의외성(Unexpected), 지시사(Demonstrative), 수식어(Modification)

1. 들어가며

본고는 마쓰시타 다이샤브로(松下大三朗,1930), 미카미 아키라(三上章,1953), 구노 스스무(久野曄,1973), 이오리 이사오(庵功雄,1997) 등의 선행연구에서 조사 「は」와 「が」가 신정보와 구정보로 구분하여 연구가 되어왔지만 단순히 신정보와 구정보로 나누는 것은 무리(無理)가 있어 「は」는 「정보공유」, 「が」는 「의외성」의 기능을 한다는 새로운 의미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体言(名詞)を修飾する。不明確な物事を指す」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연체사 「ある」에 따른 「は」와 「が」의 상관관계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겠다.

- (1) 革命家といえば信長の場合ほど明確な革命家があらわれた例は、日本史上、稀《まれ》と
いっている。かれは、政治上の変革だけでなく、経済、宗教上の変革までばくぜんと意識
していたし、そのある部分は着々と実現した。 国盗り物語(司馬遼太郎)

* 대림대학교 국제어학원 조교수

예문(1)의 「ある部分は」에 있어서 「ある部分」이 지시하고 있는 것은 「政治上の変革だけでなく、経済、宗教上の変革(정치상의 개혁만이 아니고 경제, 종교상의 개혁)」의 특정의 일부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ある部分は」에 있어서의 조사「は」는 「정보공유」로서의 기능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ある部分」이 「政治上の変革だけでなく、経済、宗教上の変革」를 특징으로 나타내고 있어 이미 「政治上の変革、経済、宗教上の変革(정치상의 종교, 경제, 종교상의 개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ある」의 고유의 기능인 불특정 지시 보다 카테고리 안에서 특정적인 지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겠다.

(2) ふいに思いも寄らなかったある考えが私の心をつらぬいたのです。もし有馬靖明という人との間に生まれた子であったとしたら、清高は五体満足な人間として生まれていたかもしれない。
錦繡(宮本輝)

예문(2)를 보면 「ある考えが」의 조사로서의 「が」가 나타내는 것은 松下大三朗(1930), 三上(1953), 久野(1973), 庵(1997)에서 서술한 신정보로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왔지만 예문(2)의 경우와 같이 신정보나 구정보라고 구분하기는 어렵다. 「ある」는 부정칭으로서 문맥을 보자면 「ある考え」라는 것은 이미 그 생각에 대해 떠오른 과거정보로서의 상황이며 굳이 신정보와 구정보를 나누자면 구정보에 가깝다. 그러면 선행연구에서 서술한 것은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

상기의 예문과 같이 연체사 「ある」는 불특정을 나타내기보다 특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어 조사 「は」와 「が」는 단순히 신정보와 구정보로 구분하기보다 「정보공유」 「의의성」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타당성을 갖고 그 것을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조사 「は」와 「が」에 대해 각각의 「신정보」와 「구정보」의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대표적으로 松下大三朗(1930)는 다음의 예문에 대해 「未定可変の概念(미정가변의 개념)」과 「既定不可変の概念(기정가변의 개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は」와 「が」의 구분을 설명하고 있다.!)

(3) 私~~は~~吉田と申します。社長に御取次を願います。

(4) 私~~が~~先日履歴書を差し上げました吉田でございます。

(3)은 아무것도 모르고 접수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문(文)에서 눈앞에 있는 「私」는 기정(既定)의 개념이고 「吉田」는 미정(未定)의 개념이다. 이러한 기정(既定)의 개념 「私」에는 「は」가 붙는다. 그리고 (4)의 「吉田」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장님에게 말하는 문(文)에서 「吉田」가 기정(既定)의 개념이고 「私」는 미정(未定)의 개념이다. 이러한 미정(未定)의 개념은 「が」가 붙는다고 하였다.

그 후 久野(1973)는 「新しいインフォメーション(새로운 정보)」와 「古いインフォメーション(옛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久野(1973)는 문맥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새로운 정보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옛정보라고 서술하고 있다. 2)

久野(1973)의 위의 개념에 대해 기본이 되는 개념 「新しい、予測できないインフォメーション」(新情報)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古い、予測できるインフォメーション」(旧情報)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予測できる」는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太郎と花子と二郎があそこにいる。

- a. 太郎はイスに腰掛けている。
- b. 太郎が花子を呼んだ。
- c. 花子はいちばん背が低い。
- d. 太郎と二郎は兄弟だ。

위의 예문에서 「太郎が」는 「新情報」에서, 그 밖의 「太郎は」「花子は」「太郎と二郎は」가 「旧情報」인 것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지 의문이 된다. 그리고

タクシーが止まっている。

- a. 運転手は若い男だ。
- b. 運転手がタバコをすっている。

1) 松下大三朗(1930)『標準日本口語法』中文館書店, pp.339-343
 2) 久野曠(1973)『日本文法研究』大修館書店, p.207

「運轉手」は「예측」할 수 있는 정보인지, 할 수 없는 정보인지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구노(1973)³⁾는 「は」와 「が」에 대해서 정보의 신규(新舊)라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 (5) a. 兄弟の中で誰が独身ですか
 b. 太郎が独身です

(5)a는 청자의 형제 중에서 누군가가 독신이라는 것을 화자가 전제로 한 질문이다. 이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장 (5)b의 주어 「太郎」는 질문중의 미지수X(즉「誰」)로 해석되기 때문에 새로운(예측할 수 없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밖에 같은 문(文)의 「独身です」는 X를 꺼내기 위한 프레임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증거로 (5)a에 대해서 단지,

- (6) 太郎です

라고 대답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다음의 예문을 보겠다.

- (7) a. 太郎と花子と夏子のうちで、誰が一番背が高いか。
 b. 太郎が一番背が高い。

에 있어서도 (7)b의 주어 「太郎(が)」는 새로운, 예측할 수 없는 정보를 술부 「一番背が高い」는 오래전의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주어진 구성요소가 그 문(文) 중에서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는지 오래전의 정보를 나타냈다는 개념과는 별개의 것에 주의를 요한다. (7)b의 「太郎」는 이미 질문의 안에 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나포릭(anaphoric)이다. 그러나 (7)b의 문(文) 중에서 「太郎」가 차지하고 있는 의미기 능이란 견해로 보자면 그것은 새로운 정보, 즉 문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어 조사 「は」와 「が」를 단순히 구정보와 신정보라는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は」는 「정보공유」, 「が」는 「의외성」을 갖는다고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본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3) 久野曠(1973)『日本文法研究』大修館書店, p.209

3. 연체사 「ある」에 있어서의 「は」와의 상관관계

본 장에서는 조사 「は」가 구정보로의 구분이 되기보다는 연체사 「ある」는 가 수반되어 「정보공유」로서의 기능을 하는 의미적 양상을 보기로 하겠다.

(8) 研修所は職場の続きだった。学校でありながら、学校でなく、実質的には工場でもあった。ある時は実務をやり、ある時は教室に坐った。実務と学務とが有機的に密着すれば、この研修は成功し、いささかでも、この二つの実行過程に溝《みぞ》ができれば、あぶち取らずの結果に終った。
孤高の人(新田次郎)

(9) テンポのおそい踊りであった。北村の持っている赤い布は、器用に動いた。あるときは、それは枯すすきになり、ある時は、船頭の持つ竿《さお》になり、ある時は、オレになりオマエにもなった。赤い布が、種々の役目を帯びて動いている間中、その一端は、北村安春の恥部をたくみにかくそうとしているようであったが、枯れすすきの歌がいよいよ最後に近づいて来ると、北村安春は背伸びするように立上って、赤い布を延ばした。
孤高の人(新田次郎)

(10) 男色《しゅうどう》は心得ている。寺稚児《ちご》のころは坊主どもに抱かれもしたし、学生《がくしょう》になってからは眉《み》目《め》のよい稚児を抱きもした。恋情ということも恋の駆けひきも、そういうことでは知りぬいていた。いや、その道でも松波庄九郎は達人芸といってよかった。妙覚寺本山のころは、寺に五十人ほどいる稚児たちがみな法蓮房庄九郎に抱かれることを誇りとし、ある者などは焦《こ》がれ死ぬばかりの恋文をよこしたりした。
國盗り物語(司馬遼太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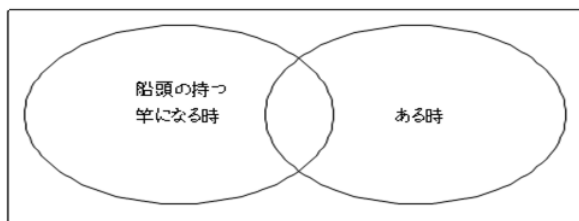
예문(8)을 보면 「ある時_は」에서 「ある時」는 불특정적인 시간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느 때」라는 일정한 기간의 범주를 나타내는 즉, 연구소는 학교이기도 하고 공장이기도 한 곳에서 주재하고 있는 시간은 실무를 하기도 하고 교실에 앉기도 한다. 여기서 연체사로서의 「ある」는 그 기능이 지시사적 역할로 이향(移向)된다고 할 수 있다. 「ある時_は」에서의 「は」도 구정보라기 보다 「정보공유」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예문(9)의 경우 「ある時」에 「船頭の持つ竿《さお》になる(배 머리를 잡는 샷대가 된다)」에서 「ある時」임의적 시간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船頭の持つ竿《さお》(배 머리를 잡는 샷대)」가 되는 그 시간을 지시할 수도 있다 「時(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은 「ある」는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의 전환으로 특정의 시간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여기에서 「ある時」의 「は」는 특정시점을 나타내는 「정보공유」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은 <표 1>과 같다.

<표 1>



예문(10)에서의 「ある者など」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妙覚寺本山のころの五十人以上の人(묘각사 모토야마시절 50인 이외의 사람)」이다. 「妙覚寺本山(みょうかくじもとやま)のころ(묘각사 모토야마)」에는 50명이 「法蓮房庄九郎(호렌보 쇼쿠로)」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 이외의 사람이 「ある者など」에 포함된다. 여기서의 「ある」는 특정의 지시적 역할을 하고 「は」는 상황의 「정보공유」로서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예문(10)(11)의 예문을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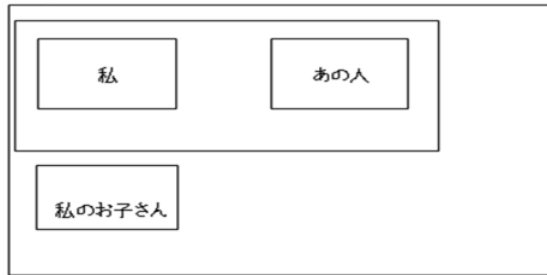
(11) もっと小さいときは、肢体の不自由なあきらかに知恵遅れとわかる顔つきでしたから、ある人はあからさまに気の毒そうな表情でそう言い、ある人はわざと無表情を装って訊いてくるのでした。私はそのたびに、体のあちこちに力を込めて、あえてまっすぐに相手の目を見つめながら、昂然《こうぜん》と、はいと答えてきました。けれども、私はあなたから「おさんですか」と訊かれたとき、かつて一度も味わったことのないような恥しさに包まれて、ためらいながら、小さく返事をしていました。 錦繡(宮本輝)

(12) 湯が浴槽に落ちて行く音も聞こえ、そうだ、自分は十年前もこの窓辺から庭の方に目を向けて、浴槽に湯が落ちて行く音を聞きながら、由加子のやって来るのを待っていたのだと思いました。あるときはしょんぼりと、あるときは目を輝かせ、あるときは上気して火照《ほて》った頬を手で押さえながら、由加子はそっと部屋の襖を開いて入って来たのです。 錦繡(宮本輝)

예문(11)은 처음의 「ある人」와 두 번째의 「ある人は」는 몸이 불편한 「私」의 자식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 부정칭의 「ある人は」는 「私」의 자식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한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표 2>를 보면 하기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



위의 <표 2>와 같이 「私」와 「あの人」의 공간 안에는 하나의 인식범주에 있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私のお子さん」도 포함하여 하나의 정보가 공유되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ある人は」의 「특정의 개념」과 「정보공유」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예문(12)도 같은 패턴을 취하고 있다. 예문(12) 처음의 「あるときは」는 「しょんぼり(멍하니)」, 두 번째의 「あるときは」는 「目を輝かせ(눈을 빛내고)」, 마지막의 「あるときは」는 「上気して火照《ほて》った頬を手で押さえ(미움이 들며 볼을 손으로 누르기도 하고)」라는 10년 전에 창에서 정원으로 봤을 당시의 상황을 상징해 보았을 때 「あるときは」의 10년 전의 그 상황을 지시하는 특정의 지시적 의미와 정보적 공유를 나타내고 있다.

4. 연체사 「ある」에 있어서의 「が」와의 상관관계

본 장에서는 연체사 「ある」가 부정칭의 기능이 아닌 지시를 나타내는 지시사적기능도 수반한다는 것을 알아보고, 조사 「が」가 갖는 「의외성」의 기능을 알아보겠다.

- (13) 「相談などは、おのれらにするものか。わしの思案を口に出してまとめるために、話し相手として呼んだのだ」

「して、どのような」

「じつはお屋形様に国外へ出てもらおうか、とおもっている」

「いよいよ、来ましたな」

赤兵衛は、その一事が、ふたりでこの国に流れてきたときからの計画だから、

(もはや、仕上げか)

とおもい、感慨無量な顔をしたのである。

そうは思いつつ、ふと、ある一事が気になって、庄九郎に質問してみた。

「殿。なにしろ、お屋形様と殿とは、君臣水魚のまじわりをなされております。いざとなった今日、うしろめたくはござりませぬか」

そんな弱気が出れば、事はかならず失敗する、と赤兵衛なりに思ったのである。

国盗り物語(司馬遼太郎)

- (14) あなたと結婚し、星島建設に入社して一年程たった頃のことです。ある機械メーカーが舞鶴に工場を建設することになり、その施工を地元の建築会社との共同作業という形で依頼してきました。錦織(宮本輝)

예문(13)의 「ある一事が」의 「が」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신정보로서 알려져 왔지만 「ある一事」가 지시하는 「屋形様に国外へ出てもらおう(아가타씨에게 국외로 쫓아 보낸다)」로 「ある」는 「어떤」의 의미로 부정칭이긴 하나 「ある一事」가 지시하는 것은 부정칭이 아닌 「屋形様に国外へ出てもらおう」를 지시하는 특정의 지시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ある一事が」의 「が」도 松下大三朗(1930), 三上(1953), 久野(1973), 庵(1997)가 주장하는 신정보로서의 「が」라고는 말할 수 없을 듯하다. 「ある一事が気になって(어떤 하나의 일이 궁금해서)」처럼 이미 알고 있는 즉,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が」는 문맥상의 「ふと」의 부사를 수반하면서 「의외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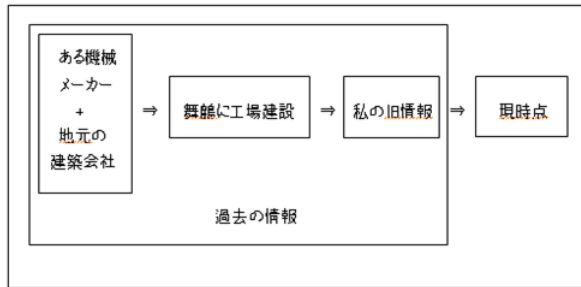
예문(14)에서는 「ある機械メーカー가(어떤 기계의 상표가)」의 「ある機械メーカー」는 불특정의 기계의 상표를 지시하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임의의 특정개체로서 나타내는 있고 이 기계의 상표는 과거의 일부분을 꺼내어 나타내는 어떤 기계 상표로 특정의 상표의 이름은 없지만 「ある機械メーカー」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표로 지시적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が」는 신정보로서로 취급하고 있어 정반대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다시금 생각의 여지를 남겨야 할 것이다. 「ある機械メーカー가」의 「が」는 뜻하지도 않게 「舞鶴に工場」에 건설하게 되었다는 의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3>과 같이 과거의 정보를 끄집어내는 즉, 정보공유의 기능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현시점의 정보안에서 과거의 순차적 기억이 「ある機械メーカー+地元の建築会社 ⇒ 舞鶴に工場建設 ⇒ 私の旧情報 ⇒ 現時点」에 이르기까지의 기억이 과거의 정보와 지금의 정보가 서로 공존하는 상호정보공존의 틀을 만들어 간다.

<표 3>



다음의 (15)(16)의 예문도 보겠다.

(15) そのときは、烈しい悲嘆と動揺に包まれて、正常な心を失っていましたが、夜中におむつを取り換えるために起きあがったとき、ある考えが私に襲って来ました。私は何も悪いことをしていない。なのに、どうしてこんなめにあうのだろう。 錦織(宮本輝)

(16) そして夫の寝顔を見つめました。ふいに思いも寄らなかったある考えが私の心をつらぬいたのです。もし有馬靖明という人との間に生まれた子であったとしたら、清高は五体満足な人間として生まれていたらかもしれない。何と恐しい考えだったことごさいます。 錦織(宮本輝)

예문(15)의 「ある考え」가 지시하는 것은 「有馬靖明という人との間に生まれた子(아리마 야스아키라는 사람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지시하고 있고 이러한 우려가 「もし」를 통해 걱정의 문제 즉, 「ある」가 의미적으로 불특정 개체를 지시하는 것 같지만 특정의 개체를 지시하고 있다. 「ある考え」의 전반부는 불특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후반부에서는 「有馬靖明という人との間に生まれた子(아리마 야스아키라는 사람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지시하는 특정의 개체를 나타낸다. 이러한 개체는 「私に襲って来ました」를 수반하면서 「ある考えが」의 「が」의 기능이 생각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순간의 「의외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문(16)은 「ある考えが」가 지시하는 것은 「有馬靖明(아리마 야스아키)」와의 관계에서였으면 하는 「清高(기요타카)」는 정상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관계 속에서 「ある考えが」의 조사 「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다시금 생각해 본다. 적어도 「が」는 선행연구에서 서술해온 신정보로서의 「が」라고는 말할 수 없을 듯하다. 여기에서의 「が」는 「ふいに」의 부사를 동반함으로써 「의외성」을 강조하게 되고 「私の心をつらぬいたのです」를 수반하면서 「ある考え」는 「有馬靖明という人との間に生まれた子」를 지시하는 불특정이 아닌 특정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5. 마치며

본고는 일본어 조사 「は」와 「が」에 있어서 부정칭 「ある」의 상관관계를 고찰한 것이다. 松下大三朗(1930), 三上(1953), 久野(1973), 庵(1997) 등의 선행연구에서 「は」는 구정보로서 「が」는 신정보라는 정설로서 일본의 학교문법으로 규정 아닌 규정으로 지금까지 쓰여 지고 있지만 본고에서 밝히고 있듯이 단순히 구정보와 신정보로 볼 것이 아니고 「は」는 「정보공유」, 「が」는 「의외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성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문법에서 「ある」는 부정칭의 의미로만 알려져 왔지만 본고의 예문과 같이 불특정개체를 나타내는 부정칭보다 특정의 개체를 지시하는 기능이 의미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본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재고의 여지를 남기며 궁극적으로 일본어 조사 「は」와 「が」의 연구를 진행해 보겠다.

【參考文獻】

- 한승우(2010) 「현대일본어조사에 관한 연구-「この/そのNがP」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회』 49집
- 庵功雄(1997) 「「は」と「が」の選択に関わる一要因-定情報名詞句のマーカの選択要因との相関からの考察-」 『国語学』 188, pp.1-20
- 庵功雄外(2002) 『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p.319-321
- 上林洋二(2000) 「固有名の意味」 文教大学文学部『文学部』 14-1号, pp.36-47
- 大島資生(1995) 『「は」と連体修飾節構造』 『日本語の主題と取り立て』 くろしお出版, pp.109-138
- 尾上圭介(1981) 『「は」の係助詞性と表現的機能』 『国語と国文学』, pp.40-53
- 尾上圭介(2004) 朝倉日本語文法6『文法Ⅱ』-「第11章 主語と題目語」(丹羽氏部分) 朝倉書店, pp.275-276
- 菊地康人(1995) 『「は」構文の概観』 『日本語の主題と取り立て』 くろしお出版, pp.37-70

久野暲(1973)『日本文法研究』大修館書店, p.185, pp.207-218

_____(1992)『指示詞』ひつじ書房, p.69

坂原茂編(2000)『認知言語学の発展』ひつじ書房, pp.48-59

佐久間鼎(1967)『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 pp.34-35

正保勇(1981)『日本語の指示詞』『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国立国語研究所, pp.83-91

砂川有里子(2005)『文法と談話の接点』くろしお出版, pp.85-134

竹林一志(2004)『現代日本語における主部の本質と諸相』くろしお出版, pp.131-156

仁田義雄(1985)「主格の優位性-伝達のムードによる主格の人称指定-」『日本語学』10月号 明治書院, pp.33-45

西山祐司(2005)「コピュラ文の分析に集合概念は有効であるか」『日本語文法』5巻2号, pp.63-77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仁田義雄外)(2010)『現代日本語文法』くろしお出版, p.202

丹羽哲也(2004)「名詞句の定・不定と『存否の題目語』」『国語学』第55巻2号, pp.21-35

野田尚史(1996)『「は」と「が」』くろしお出版, pp.107-117

堀口和吉(1995)『「〜は〜」のはなし』ひつじ書房, p.15

益岡隆志他編(1995)『日本語の主題と取り立て』くろしお出版, pp.139-154

松下大三朗(1930)『標準日本口語法』中文館書店, pp.339-343

三上章(1953)『現代語法序説』刀江書院(復刊 1972) くろしお出版, pp.29-41

_____(1960)『象は鼻が長い』くろしお出版, pp.8-16

[참고자료]

新潮文庫(2001) 100권 CD-ROM

논문투고일 : 2013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20일

 <要旨>

일본어 연체사 「ある」의 지시사적 용법에 따른 조사 「が」와 「は」의 의미적 고찰

본고는 마쓰시타 다이자브로(松下大三郎, 1930), 미카미 아키라(三上章, 1953), 구노 스스무(久野暉, 1973), 이오리 이사오(庵功雄, 1997) 등의 선행연구에서 조사 「は」와 「が」가 신정보와 구정보로 구분하여 연구가 되어왔지만 단순히 신정보와 구정보로 나누는 것은 무리(無理)가 있어 「は」는 「정보공유」, 「が」는 「의외성」의 기능을 한다는 새로운 의미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体言(名詞)を修飾する。不明確な物事を指す」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연체사 「ある」에 따른 「は」와 「が」의 상관관계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ある」은 부정칭으로서 「ある」라는 것은 이미 그 생각에 대해 떠오른 과거정보로서의 상황이며 굳이 신정보와 구정보를 나누자면 구정보에 가깝다. 그러면 선행연구에서 서술한 것은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

연체사 「ある」은 불특정을 나타내기보다 특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어 조사 「は」와 「が」는 단순히 구신정보와 신정보로 구분하기보다 각각의 「정보공유」 「의외성」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타당성을 갖고 그 것을 밝히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A study on the demonstratives of japanese language 「aru」 meaning of postposition 「ga」 and 「wa」

Paper matusita(1930), mikami (1953), kuno(1973), iori(1997), such as in the preceding studies in the investigation “wa” and “ga” the separated Shin information and nine information to research there have been unreasonable by simply dividing by the new information and old information “wa” is “information sharing”, “means that the new structure” and “ga” is presented.

Consideration, I'll have “Refers to qualify (noun). Things ambiguous body language” means in this context, four in arrears in accordance with the “aru” “wa” and “ga” correlation And “aru” the called “aru” Ching as negative situation and think about it already surfaced as historical information necessarily sleep nine to share new information and old information is more information. The study described in no doubt want to leave.

Delinquent four “aru” unspecified to indicate more specific, can be closer to the And that will have validity than the Japanese survey “wa” and “ga” simply to distinguish between old information and new information, “information sharing”, “unexpectedness” to distinguish those that elucidate its significance.